

5·18 소재 영화 '택시 운전사' 속 獨기자 취재 동행 기사 감사복은

힌즈페터 “용감한 기사 덕 5·18 알릴 수 있었다”

영화제작사 실제 인물 수소문 했지만 못찾아 평범했던 택시기사 의식 변화 과정 그려질 듯

“당시 광주까지 나를 태워주고 안내해 준 용감한 택시기사에게 감사드립니다.”

80년 5월 광주의 참상을 현장 취재해 세계에 알린 독일 언론인 고(故) 힌즈페터씨는 수상 소감이나 언론 인터뷰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국인 택시기사’를 언급했다.

배우 송강호씨가 주인공으로 낙점된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소재로 한 영화 ‘택시 운전사’ 속의 택시기사는 작가가 꾸며낸 가상의 인물이 아닌 실존 인물에서 출발한다. 하지만, 독일 방송국의 특파원으로 활동하던 힌즈페터씨를 태우고 광주에 온 택시기사 감사복(영화 속 김만섭·송강호

역)이 어떤 인물인지 현재까지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의 객관적 행적이라는 힌즈페터씨가 다큐멘터리 등을 통해 “용감한 한국인 택시기사가 서울서 나를 태우고 광주로 갔다. 그가 안내해준 덕분에 현장 취재와 보도를 할 수 있었다”가 사실상 전부다.

영화 제작사 측은 생전 힌즈페터씨 인터뷰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80년 5월 한국인 택시기사’를 수소문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그를 찾지는 못했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5·18 기념재단도 한국인 택시기사에 관해서 “힌즈페터씨를 도운 택시기사가 있었다는 것 외엔 딱히 아는 게

없다”는 설명이다.

그렇다면, 시나리오 작가가 영화속에서 그런 택시기사 김만섭은 어떤 모습일까.

영화 시놉시스 속 택시기사 김만섭은 데모하는 대학생들을 보면 욕을 내뱉고 억척스럽게 일해 가족을 부양하는 소시민 모습으로 처음엔 그려진다. 시위하는 대학생들을 보며 “데모하려고 그 비싼 등록금 내고 대학에 갔어?”, “니들이 내 영입 방해한 1순위”라고 할 정도였다. 그가 독일인 기자 힌즈페터씨와 위협천만한 동행을 시작한 이유도 단 한가지. 한 편이라 더 벌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외국인 기자와 함께 광주로 내려왔던 김만섭은 계엄군 총칼에 짓밟히면서도 자치 공동체를 형성하며 독재 권력에 저항하는 시민들을 보며 ‘먹고 사는 것’ 그 이상의 무엇에 대해 느끼고 서서히 변

해간다. 시위대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에게도 무차별적으로 가해지는 폭력을 목격하고서 자신이 그간 알고 있던 가치관이 무너지며 혼란과 충격에 휩싸이는 것도 잠시, 이내 마음을 다잡는다.

얼마든지 계엄군의 무자비한 폭력이 진행되는 항쟁의 한복판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위험을 무릅쓰고 힌즈페터씨를 도와 광주의 참상을 외부에 알려야겠다고 마음먹기에 이른 것이다.

제작사 관계자는 “생전 힌즈페터씨와의 독일 현지 인터뷰, 힌즈페터씨를 다룬 다큐멘터리, 신문보도 등을 통해 되도록 사실에 근접한 영화를 만들려는 노력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영화 장르 특성상 작가의 상상적 요소도 적지 않게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호기자 khh@kwangju.co.kr

신임 광주고법·지법원장 인터뷰

“공정 재판 받고 있다는 생각들게 진행”

유남석 신임 광주고법원장



법정 분위기를 이끌어줘야 한다”며 “항소심이 소모적으로 운용되지 않도록 1심 재판의 충실한 심리를 유도할 수 있는 재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법원에 오는 국민은 편치 않은 마음일 것”이라며 “판사와 직원들은 말과 태도부터 공손하게 대해 최대한 편안한 마음으로 일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 고법원장은 목포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독일 본대에서 수학했다.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헌법재판소 수석부장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원장 등을 지냈다.

“재판을 받는 양 당사자가 ‘내가 공정하게 재판을 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절로 들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유남석(59·사법연수원 13기) 신임 광주고등법원장은 11일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판사가 공정하고 정당한 재판을 했구나”라고 자부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재판을 받는 당사자나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여느냐가 더 중요하다”면서 “국민이 어떻게 느끼고 받아들이는지 주의깊게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유 고법원장은 “국민의 신뢰는 무엇보다 사법권의 핵심 기능인 재판을 통해 형성돼야 한다”며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분쟁을 법원이 오로지 법의 정신과 원칙에 따라 불편부당하고 공평무사하게 해결해 줄 것이라는 신뢰를 얻는 것이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이 당사자와 소통하는 과정을 잊지 말고, 열린 마음으로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도록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사진=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공감 가는 판결로 신뢰 쌓겠다”

김광태 신임 광주지법원장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한다면 사법부, 그리고 우리의 가치는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광태(55·사법연수원 15기) 신임 광주지방법원장은 11일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법원의 판결과 역할에 대해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하다”며 “판결 등 법원 소식을 국민이 쉽게 알 수 있게 잘 전달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광주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40년만에 고향에 돌아왔다. 따뜻하게 맞아줘 감사하다”면서 “법원에 지역주민과의 소통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법원장은 “아무리 많은 판례가 모이고 양형 기준이 세분화되더라도 기계에 의해 처리되어서는 안 된다. ‘인간’ 판사가 내리는 ‘인간적인 결론’을 신뢰한다”면서 “전체 맥락을 읽는 것, 구구절절한 사안들에 대한 공감은 결코 프로그램이 대신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람들은 때로 이중 잣대를 적용

한다. 당사자가 됐을 때 자신의 일은 일반론으로, 단정한 건으로 취급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며 법관으로서의 자세에 대해 조언했다.

이어 “사법부가 늘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국제적으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나라 안에서는 그에 합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며 “함께 힘을 모아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원, 행복한 법원을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광주 출신의 김 지법원장은 전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제주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사진=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검찰, 누리예산 미편성 광주시교육청 수사

검찰이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책정하지 않은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

11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지검

은 지난 5일 시교육청에 ‘고소·고발사건 수사개시 통보’ 공문을 발송했다는 것이다.

앞서 광주시어린이집연합회(회장 박신애)는 지난 달 11일 광주 어린이집 누리과

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광주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또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광주와 전남도교육청 등 전국 7개 교육청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다.

장 교육감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 “민변의 (법률적 문제) 검토 의견서를 받았다”면서 “다른 시·도 교육감과 협의해 대응 방안 등을 찾겠다”고 말했다.

김지윤기자 dok2000@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23 해질 18:11
달출 19:36 달짐 22:21

시설물 피해 주의

시간당 20mm 이상의 비가 오는 곳도 있겠다.

◇지역별 날씨(℃)

광주	흐리고비	11/16	보성	흐리고비	8/13
목포	흐리고비	11/16	순천	흐리고비	9/15
여수	흐리고비	11/13	영광	흐리고비	12/16
나주	흐리고비	10/16	진도	흐리고비	11/16
완도	흐리고비	10/15	전주	흐리고비	11/17
구례	흐리고비	9/15	군산	흐리고비	9/16
강진	흐리고비	10/16	남원	흐리고비	9/15
해남	흐리고비	10/16	축산도	흐리고비	8/14
장성	흐리고비	10/15			



◇바다 날씨

지역	바다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남동~남	1.0~2.5	남~남서	1.0~2.0
남부	면바다	남동~남	2.0~4.0	남~남서	1.5~3.0
	앞바다	남동~남	1.0~2.5	남~남서	1.5~3.0
남해	면바다(동)	남동~남	2.0~4.0	남~남서	2.0~4.0
서부	면바다(서)	남동~남	2.0~4.0	남~남서	2.0~4.0

◇생활지수

관심	체감온도
낮음	동파
보통	뇌졸중

◇물때

목포	밀물	썰물
	04:42	09:51
	17:08	22:17
여수	11:48	05:20
	00:00	17:51

◇주간 날씨

13(토)	14(일)	15(월)	16(화)	17(수)	18(목)	19(금)
☁	☀	☁	☀	☀	☀	☀
13/17	3/4	-3/2	-2/5	-2/6	-1/9	-1/7

암투병·80세 졸업...사연도 구구절절

광주 방송통신중 14일 첫 졸업식...72명 배출

수십년 만에 공부의 한(恨)을 풀 광주 북성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첫 학교(敎學徒) 졸업생들의 사연은 구구절절했다.

방송중은 중학교 학력을 취득하지 못한 성인과 학업중단 청소년 등에게 중졸 학력 취득 기회를 주고자 설립된 공립 중학교로, 지난 2013년 처음 문을 열어 신입생을 받은 뒤 오는 14일 첫 졸업생을 배출한다.

이번에 졸업장을 받는 졸업생들은 모두 72명으로, 어린 시절 집안이 가난했거나 일찍 생활전선에 뛰어들어 학교를 못 다니다 뒤늦게 공부에 뛰어들어 50~60대 만학도들이 대부분이다.

팔순 노인, 암 투병중에도 역경을 딛고 졸업장을 받게 된 졸업생이 있는가 하면, 3년 동안 맨 먼저 등교해 학교 청소를 하고 수업을 듣는 등 항학열을 불태운 만학도 졸업생들도 적지 않았다.

이모(80)씨는 방송중 최고령 졸업생으로 부인 이모(74)씨와 졸업장을 받게 됐다. 이씨는 한국전쟁으로 학업을 중단한 뒤 배움의 기회를 놓쳤다. 고통에 견딜 수 없었지만 부인과 함께 3년 간 단 한 차례도 지각·결석 없이 학교를 찾았고 영어 단어·문법, 수학 공식을 외우

는 게 여간 힘들어도 수업시간마다 질문을 하는 열의를 보이기도 했다. 박모(여·58)씨는 어려운 가정 형편에 중학교 진학을 못했다가 배움에 대한 갈증을 풀겠다며 24시간 교대로 이뤄지는 간병 활동과 학업을 병행하는 열정으로 졸업장을 받게 됐다.

김모(여·73)씨는 3년 내내 맨 먼저 등교, 학습 분위기를 위해 교실 청소를 한 뒤 수업을 듣는 열성을 보였고 성모(여·50)씨는 3년 간 자신의 도시락 외에 여분의 점심을 추가로 싸와 동료 만학도들과 함께 나누며 학창생활의 추억을 만드는 노력을 기울였다. 이모(여·59)씨는 암 투병중임에도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3년 간의 중학 생활을 무사히 마쳐 졸업식장에 서게 됐다.

방송중 관계자는 “만학도 졸업생들은 학업에 대한 열의와 집념은 진지하고 뜨거웠다”고 전했다.

광주북성중 부설 방송통신중은 14일 오전 10시 학교 강당에서 졸업식을 열고 72명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한편, 광주 의 목포중앙여중과 순천원광중에도 부설 방송통신중이 오는 3월 개교, 운영에 들어간다.

김지윤기자 dok2000@kwangju.co.kr

소촌동 모아드림아파트 | 온세계아파트 특별분양

교육, 교통, 생활편의까지
광주를 더 크게 누립니다!

41㎡ 53㎡ 80㎡ 104㎡ 107㎡

소촌동 모아드림 아파트 온세계 아파트

- KTX 5분거리
- 광주시청 10분거리
- 나주혁신도시 20분거리
- 무안공항 원할
- 교육환경 우수 지역
어룡초, 중앙초, 정광중·고등학교, 광주여대, 호남대 근거리

가격은 500만원대

풍부한 임대수요

우수한 교육환경

선착순 동, 호수지정

문의

062 383-6400